

# 202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돌아보며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을 주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해양과학기술(Marine Technology)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대한조선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등의 참여하에 「202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전환 시대, 미래의 바다”라는 대주제하에 개최한 금번 공동학술대회에 약 1,500여명의 해양과학기술 전문가가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IVCC로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834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대전환 시대, 미래의 바다”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기조발표를 한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 김현수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前회장을 좌장으로 국승기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강범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회장, 조철희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김현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회장,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이신형 대한조선학회 부회장이 참가한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제공되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김흥희 해양경찰청 청장, 박남춘 인천시 시장,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용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완현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장,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형철 한국선급 본부장, 송찬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획경영본부장 등 1,500여명 등 각계각층의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및 밀도 있는 개회식 개최되었다.

공동심포지움에 이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연구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원생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수 학술논문 발표자를 선정하는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논문 공고를 통해 접수한 74명의 후보자 중 16명이 대상, 최우수상 및 특별상에 최종 선정되어 해양과학기술분야 학술발전과 관련 신진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2021년 5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취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채용상담 및 컨설팅에 대한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사 해양에너지 및 그린수소, 해양안전과 구난, 해양쓰레기 저감&수거기술, 해양의 자연재해, 친환경 스마트선박, 자율운항선박, 해양연구와 인공지능/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등의 주제로 공동워크샵 및 학회별 발표 세션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제간 융합을 위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제공되었다.

인천시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참가를 기록하였으며 IVCC 행사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의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금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과 MT의 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재인식하였고 MT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국민들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해양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